**3.1운동 100년, 앞으로의 100년을 향한 선언서**

3.1운동 시 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여성독립운동가들은 당당함과 기개를 가졌고 여성의 주체성, 남녀평등 사회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 지도자로서 자신의 역량을 끊임없이 계발하며 남성과 동등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난 지 100년이 되었습니다. 또한 임정 100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모습으로 남녀 차별이 없는 민주적인 100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여성들에게 사회적인 제약이 많습니다.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유리천장을 없애고 진정한 성평등사회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제도적인 걸림돌이 있다면 우리가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여성들이 사회에서 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합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많은 제도가 남성 중심적인 사회를 지원하는 시스템에서 살고 있습니다. 법의 관점에서 보면 남성과 여성은 동등하지만, 현실에선 다릅니다. 여성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성의 능력이 사장되지 않고 대우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과거 100년이 여성들의 삶의 방향과 질이 달라지는 과도기를 거쳤다면 앞으로의 100년은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들이 전문가로 활동하며, 이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는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현행 우리나라의 여성정책의 목표는 여성의 지위향상, 사회참여의 확대, 여성복지의 증진입니다. 여성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이며 가능성의 존재로 파악할 때 남녀평등을 통한 국가와 사회의 발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2019. 3. 23 김주연